

[2002학년도 전문대 입시 특징]

2002학년도 전문대 입시는 전형 일정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빨라졌다. 지난 입시에서는 일반대와 동시에 전형한 전문대가 84개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1백58개의 대부분이 동시에 학생을 선발한다.

수험생들은 따라서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수많은 일반대.전문대가 한데 엉켜 전형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전문대의 경우 취업률과 취업 후 전망이 좋은 대학.학과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지원에 앞서 자신의 목표에 맞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전형 일정=기능.경연대회 입상자나 자격증 소지자, 만학도, 주부 등을 뽑는 독자기준 전형의 경우 올 9월부터 12월 말까지 29개대가 원서를 접수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마감 시기가 다소 늦다.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백7개 대학이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독자기준 전형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은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일반대 정시모집 1차 합격자 발표 마지막 날(2002년 2월 3일) 을 전후해 전문대 59곳이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 기간 중 합격자 발표.등록 등이 몰려 있는 셈이다.

◇ 전형 요소=정원내 모집 인원의 42.2%를 차지하는 일반전형(주간 기준) 에서는 학생부 성적 50%와 수능 성적 50%로 전형하는 전문대가 76개로 가장 많다. 학생부 40%, 수능 60%를 반영하는 전문대도 64개나 되므로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일단 수능 성적이 좋아야 한다. 두원공과대 등 4개는 수능만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의료간호대 등 25곳은 지난해 본 수능 성적도 인정해 점수에 반영기로 했다. 경북과학대 등 6곳은 2000학년도 수능 성적까지 받아준다.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은 최고 45%(부산예술문화대) , 최저 2.8%(계원조형예술대) 다.

야간 기준 일반전형에서는 가톨릭상지대 등 12곳이 학생부 성적만으로 전형한다. 특별전형과 독자기준 전형은 학생부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난 입시에 이어 이번에도 논술고사 등 지필고사를 보는 전문대는 없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보다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살펴 선발하는 추세다.

◇ 다양한 전문대 진학 길=2001학년도에 대학 및 전문대를 마치고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에 재입학한 학생 수는 2만7천여명이다.

이번 입시에서는 졸업자에 대한 문을 더 넓혀 3만3천8백91명을 뽑는다. 또 전문대들은 정원 외로 뽑는 시간제 등록생(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의 10% 이내, 지방 전문대는 무제한 모집) 제도를 통해 주부 등의 재취업 교육 기회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시간제 등록이란 학기당 일반 학생 취득 기준 학점(20학점) 의 절반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재학 중인 시간제 등록생은 6백37명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간제 등록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밖에 실업계 고교를 나오면 자동적으로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실업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지난 입시에서는 4만7천여명(전국 4백5개 고교) 이었으나 이번엔 6만4천여명(5백83개 고교) 으로 크게 늘었다.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면 전문대 진학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2002학년도 전문대 입시] 독자기준 전형 눈길 끌어

"장의업에 종사했거나 여군 전역자, 간호.유아교육.보육에 관심있는 남학생을 뽑습니다. "

전문대들이 2002학년도 입시에서 더욱 다양해진 독자기준 전형을 도입한다. 독자기준 전형이란 대학이 가치 있게 보는 특별한 재주.재능.직업 등을 가졌거나 불우한 환경이어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뽑는 방식이다. 전체 정원내 모집인원의 10.2%(2만9천9백23명) 다.

장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례지도과를 국내 최초로 만든 서울보건대는 '장의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에게 지원 자격을 준다.

여군 전역자를 우대하는 전문대는 군 부대와 군 작전이 많은 강원도 원주의 상지영서대. 부산에 있는 동명대는 승선 경력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뽑는 등 대학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또 간호에 소질있는 남학생을 뽑는 전문대는 김천과학대 등 10곳이나 된다. 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심이 있는 남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동남보건대 등 3곳이다.

이밖에 김천대 등 6곳은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 , 기독간호대 등 11곳은 '대학 동문의 직계 형제.자매' , 주성대는 'NGO 활동자' 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도입했다.

이들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만으로 뽑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색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자격증 소지자나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이 일반적"** 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전문대, 일반대와 동시 모집

관련기사:

[그래픽뉴스] 입시(면접)일자별 전문대 현황

[그래픽뉴스...전문대입시] 정원내 일반전형 방법

[그래픽뉴스...전문대입시] 정원내 특별전형 방법

[2002학년도 전문대 입시 특징]

[2002학년도 전문대 입시] 독자기준 전형 눈길 끌어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4년제 일반대 정시모집 전형기간(12월 14일~2002년 2월 2일) 중 전체 1백58개 전문대 가운데 1백56개 대학이 원서접수.면접 등을 실시한다. 일반대와 신입생 모집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2001학년도의 경우 일반대와 같은 기간에 입시를 치른 전문대는 84개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ce.or.kr>)는 22일 '200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계획' 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자 전형' (정원외) 이 지난 입시보다 6천1백여명 늘어난 3만3천8백91명이 됐다. 전체적으로 1백58개 전문대가 33만9천2백88명을 모집한다.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154개 전문대 '4년제'와 동시전형

몇년 새 실용학과 위주의 특성화로 발빠르게 변신한 전문대들이 높은 취업률을 무기로 올 입시에서 전형 일정을 4년제 대학과 똑같이 잡고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창구·한양여자대 학장)가 22일 발표한 '2002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 ▶계속



◀ 2002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색적인 전형도 많이 눈에 띈다.

154개 전문대 '4년제'와 동시전형 2001/04/22

전문대 신입생 절반은 특별전형 2001/04/22

전문대 이색 특별전형 '봇물' 2001/04/22

전문대학별 전형기간 입시일자별 현황 2001/04/22

154개 전문대 '4년제'와 동시전형

-- 관련기사 --

전문대 신입생 절반은 특별전형

전문대 이색 특별전형 '봇물'

높은 취업률 내세워 '가'나'다'군서 정면대결

몇년 새 실용학과 위주의 특성화로 발빠르게 변신한 전문대들이 높은 취업률을 무기로 올 입시에서 전형 일정을 4년제 대학과 똑같이 잡고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창구·한양여자대 학장)가 22일 발표한 '2002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전국 158개 전문대의 97.5%인 154개 대학이 4년제 대학 '가' '나' '다' 군 전형기간에 신입생을 모집키로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는 작년 84개 대학이 4년제 대학 '나' '다' '라' 군과 전형기간이 같았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대병설보건대·동양공전·명지전문대·한국철도대 등 50개 대학은 서울대·서강대·단국대·명지대·서울여대 등이 포진한 4년제 '나' 군의 전형기간(2002.1.2~1.19)에, 경북과학대·농협대·주성대·청강문화산업대 등 106개 대학은 덕성여대·세종대·승실대·순천향대 등 4년제 '다' 군 전형기간(2002.1.20~2.2)에 각각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졸자 및 전문대 졸업자의 전문대 회귀가 갈수록 늘어나자, 올 입시에서는 대졸·전문대졸 전형(정원외)이 150개 대학 3만3891명으로 작년(2만7767명)보다 6124명(22.1%)이나 늘어났다.

전문대의 이 같은 자신감은 '학벌'보다 '실용'을 선호한 신세대 신입생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이 79.4%인데 비해,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56%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올 초 취업률 100%인 전문대 학과만도 229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창구 한양여자대 학장은 "전문대학이 더이상 4년제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다"면서 "실속없는 학벌보다 나만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실력을 키우는데 이제 전문대가 훨씬 유리한 시대"라고 말했다.

(양근만기자 yangkm@chosun.com)

전문대 신입생 절반은 특별전형

2002학년도 입시 어떻게 뽑나

2002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신입생 두 명 중 한 명꼴인 49.1%가 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특히 실업계 고교와의 연계 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94개대 1만4070명으로 작년 1만1887명보다 18.4%나 늘어나, 전문대와 실업계 고교간의 연계 교육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원외로 모집하는 시간제등록생과 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이 크게 확대돼 직장인과 주부의 전문대 입학문이 넓어진다. 면접을 안 보는 대학은 작년 132개대에서 139개대로 늘었다.

■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은 33만9288명으로 작년보다 6341명 늘었다. 이는 정원외 모집에서 전문대 및 대졸 출신자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6124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졸 및 전문대졸 일반인들이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로 다시 물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전형은 14만8538명(50.9%), 특별전형은 14만3497명(49.1%)이다. 특별전형 중 가장 비중이 큰 독자적 전형은 실시대학이 146개에서 150개로 늘어나고 모집인원도 3만5599명으로 작년 대비 11.8%(3755명)가 늘었다.

의업종 3년이상 운영자, 전업주부, 여군전역자, 전기·기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 유아교육·보육에 관심있는 남학생 등으로 다양해졌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 3만3891명(150개대)을 비롯해 농어촌학생 8566명(154개대), 특수교육 대상자 908명(14개대), 재외국민·외국인 3888명(103개대) 등 모두 4만7253명이다. 시간제등록생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지방대는 입학정원에 상관없이 모집이 가능하다.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 지원 기준도 1년6개월이상 근무자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 전형방법 =일반전형 주간의 경우 전체 대학의 92.4%인 146개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두원공과대와 청강문화산업대, 한림정보산업대, 한국관광대는 수능성적만 100%, 백제예술대와 연암축산원예대는 학생부만 100% 각각 활용한다.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140개대)이 학생부만으로 전형을 실시한다. 논술고사 등 지필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없다.

■ 수능·학생부 반영방법 =일반전형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수능성적을 전형총점의 30% 이상 반영한다. 131개 대학은 수능 원점수를, 7개 대학은 표준점수, 14개교는 변환표준점수, 3개교는 백분위점수를 활용한다. 국립의료간호대 명지전문대 김천과학대 등 25개 대학이 작년 수능성적을, 경북과학대 연암공업대 등 17개 대학이 1997~2001년 수능성적을 활용한다. 102개 대학이 학생부 1~3학년 전체 성적을, 101개교가 전체 교과목 성적을 반영한다.

■ 전형 일정 및 기타 =입학전형은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나, 대부분 대학이 내년 1월2일부터 2월2일 사이로 전형일정을 잡고 있다. 가톨릭상지대 등 8개 대학이2차례, 대천대 등 3개 대학이 3차례에 걸쳐 분할모집한다. 전문대교육협의회는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를 설치, 수험생에게 전형계획을 안내해 주고 있다.

(양근만기자 yangkm@chosun.com)